

도내 곳곳서 '위헌·조기 퇴진' 한목소리

“국민 혼란·공포 빠뜨린 윤 대통령 즉각 사퇴를” ‘쿠데타’ ‘헌법 유린 피의자’ ‘헌행범’으로 규정 “명백한 국헌 문란·내란 행위”... 즉각적 수사 촉구

제주사회 구성원들이 지난 3일 밤 기습적인 윤석열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에 대해 명백한 위헌 행위라고 강하게 비판하며 대통령의 조속한 퇴진을 촉구했다.

4일 제주정가를 비롯해 사회·시민단체 등은 이번 사태에 대해 ‘쿠데타’, ‘헌법을 유린한 피의자’, ‘명백한 헌행범’ 등으로 규정하며 날 선 비판의 목소리를 냈다.

이들은 “이번 사태는 명백한 헌법 위반으로 결코 용서를 받을 수 없고, 내란 행위도 사라지지 않는다”면서 대통령의 즉각 사퇴를 요구했다. 또한 “정치적 결사, 집회·시위 등 일체의 정치적 활동을 막으려 했다”며 수사기관의 체포와 국회의 탄핵을 강력하게 요청했다.

제주도민사회와 시민단체들은 기자회견을 열고 “비상계엄 선포는 헌정 유린이고, 이번 사태로 제주 사회를 큰 혼란과 공포에 빠뜨렸다”고 비판했다.

제주지방변호사회도 “윤 대통령의 느닷없는 비상계엄 선포는 국민에 대한 저항으로 위헌, 위법이 명백하다”며 진상 규명과 책임자 처벌의 필요성을 제기했다.

이와 함께 제주특별자치도는 윤 대통령의 비상계엄 발표에 이은 국회의 비상계엄 해제 요구 결의안 가결과 관련, 4일 오전 1시30분에 해병대 9여단, 제주경찰청과 긴급

영상회의를 통해 비상계엄 해체에 따른 협조를 요청했다. 이 자리에서 오영훈 제주지사는 “비상계엄 선포는 무효다. 도민 여러분은 안심하시기 바란다”고 밝혔다.

이어 오전 8시 제주도청에서 가진 긴급회의에서도 오 지사는 “도는 헌법과 법률에 따라 도민의 안전과 일상적인 삶이 유지될 수 있도록 책임과 역할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이어 항공편을 이용해 국회를 찾은 오 지사를 비롯해 강기정 광주시장, 김동연 경기지사, 김관영 전북지사, 김영록 전남지사 등 더불어민주당 소속 광역단체장 5명은 공동성명서를 내고 “대통령의 계엄령 선포는 명백한 위헌이자 무효”라며 “윤 대통령이 국민을 위해 할 수 있는 유일한 일은 ‘즉시 퇴진’ 뿐”이라고 강조했다.

제주도의회도 비상계엄 선포의 위헌성을 강조하며 윤 대통령의 사퇴를 촉구했다. 이상봉 의회 의장은 이날 도의회 의사당 앞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계엄 선포는 명백한 국헌 문란이자 내란 행위로 즉각적인 수사가 이뤄져야 한다”고 주장했다.

도내 야권을 비롯해 시민사회단체 등은 이날 오후 7시부터 매일 제주시청 민원실 앞 광장에서 촛불 집회를 계획하는 것으로 전해졌다.

백금탁기자 haru@ihalla.com



4일 제주국제공항 대합실에 설치된 TV에서 윤석열 대통령의 비상계엄령 선포 소식이 보도되고 있다. (사진 맨 위) 이날 오전 도내 시민사회단체 및 정당 관계자들이 윤 대통령 퇴진을 촉구하는 집회를 벌이고 있다. (사진 맨 아래)

8명 사상자 발생 대형 교통사고... 원인은

중앙선 침범·과속 여부 등 블랙박스 등 분석 조사 예정 서귀포시는 대책본부 가동

지난 3일 오후 서귀포시 서성로와 한 도로에서 발생한 교통사고로 8명의 사상자가 나온 가운데 경찰이 중앙선 침범 여부 등 사고 원인을 조사하고 있다.

4일 제주도 소방안전본부와 서귀포경찰서에 따르면 이날 사고는 왕복 2차선 도로에서 맨터가 승합차(11인승 카니발)와 1t 트럭이 충돌하면서 일어났다. 승합차에는 6명, 1t 트럭에는 2명이 각각 타고 있었다.

이 사고로 4명이 숨졌는데 사망자는 모두 승합차 뒷자리에 타고 있던 사람들로 50대 여성 3명, 60대 남성 1명이다. 부산이 주소지인 이들은 심정지 상태로 구조돼 제주시와 서귀포시내 병원으로 각각 이송됐지만 끝내 사망했다. 신고를 받고 출동한 119구급대가 현장에 도착했을 때 환자 대부분이 차량 밖으로 나와 있었는데 안전벨트 미착용으로 튕겨져 나온 것으로 추정되고 있다.

이들 외에 승합차 운전자(50대 남)는 중상, 조수석 탑승자(50대 여)는 경상을 입었다. 트럭 운전자와 동승자인 50대 남성 2명은 중상이다.

경찰은 사고 차량 중 승합차에만 달려 있던 블랙박스를 수거하는 등 사고 경위를 조사하고 있다. 경찰 관계자는 “현재까지는 블랙박스에 충격 장면이 보이지 않아서 최대한 더 확인을 하려고 한다”고 했는데 중앙선 침범 모습은 담긴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은 승합차가 중앙선을 침범해 사고가 난 것으로 추정하고 과속 여부 등 추가 조사를 이어갈 예정이다.

한편 이번 사고와 관련 제주도의 ‘대형 교통사고 대응 실무 매뉴얼’(2급 교통사고)에 근거해 사고대책본부를 설치한 서귀포시는 3일 오후 8시 9개 재난 관리 협의 부서가 참석해 종합대책회의를 개최했다. 오순문 시장은 “관련 부서와 유관기관에서 피해자 지원 등 맡은 바 임무와 역할을 충실히 이행하고 인근 병원과 협력해 피해자들이 신속히 치료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을 당부했다. 진선희기자

제주시 도로교통공단 앞 차량통행 '최다'

1일 5만4135대... 2위 연북로 교차로 3만3186대 광평교차로·금백조로 새미오름 앞도 교통량 ↑

제주에서 차량 통행이 가장 많은 곳은 제주시 평화로 구간의 도로교통공단 앞으로 나타났다.

제주특별자치도는 지난 10월 17일 국가지원지방도(번영로, 남조로)·지방도(비자림 등 14개 노선)·시도 등 도 일원 106개 노선을 대상으로 실시한 '2024년 도로 교통량 조사' 결과를 4일 발표했다.

그 결과, 가장 많은 교통량을 나타낸 노선은 지방도 1136호선(노형로) 도로교통공단 앞으로 조사됐다. 1일 기준 교통량은 5만4135대에 이른다.

그 외 지방도 가운데 증가 폭이 큰 노선은 번영로의 연북로 교차로 3만3186대(1일 기준, 이하 생략), 한창로의 광평교차로 2만4560대, 금백

조로 새미오름 앞 6648대 등으로 전년 대비 8~16%의 증가율을 보였다.

읍·면지역 시도에서는 제주시 한림읍사무소 앞 구간(시도 제23호선)이 6399대, 서귀포시는 영어교 육도시 제2진입도로 구간(시도 제19호선) 보성·돌손빌레 구간이 6611대로 각각 최다를 기록했다.

양창원 도 건설주택국장은 “이번 교통량 조사 자료는 도로건설계획과 교통정책 수립 등에 반영되며, 한국건설기술연구원은 전국의 교통량 조사 자료를 취합·분석한 후 통계자료로 활용한다”며 “2025년 4월 30일 이후 ‘교통량 정보 제공시스템’(http://www.road.re.kr)을 통해 상세 내용을 확인할 수 있다”고 말했다. 백금탁기자

상업 시설 탄소포인트 인센티브 '쫄쫄'

일반 가구보다 4배 더 많아 서귀포시, 집중 홍보 캠페인 가입 업체 2년 새 7.5배 늘어

서귀포시 음식점, 도소매업 등 상업 시설의 탄소중립포인트제 가입이

크게 늘었다. 2022년 말과 비교하면 8배가량 증가했는데 서귀포시에서 일반 가구보다 인센티브가 높은 점을 집중 홍보한 결과라고 했다.

4일 서귀포시에 따르면 관내 상업 시설 중에서 에너지 사용량을 줄이면 인센티브를 받는 탄소포인트

제에 가입한 업체는 올 12월 현재 433개소다. 일반(휴게)음식점업 215개소, 일반도소매업 158개소, 숙박업 27개소, 사회복지시설 12개소, 의료기관 5개소 등이다.

이는 2022년 말 57개소와 비교해 대폭 늘어난 수치다. 당시 업종별 가입 현황을 보면 일반(휴게)음식점업 11개소, 일반도소매업 20개소, 숙박업 9개소 등에 그쳤다.

서귀포시는 상업 시설 감축 비용 인센티브가 높다는 사실이 널리 알려지면서 가입 업체가 증가한 것으로 보고 있다. 전기, 상수도, 도시가스 등 에너지 사용량을 과거 2년 평균 대비 감축했을 경우 상업 시설에 적용되는 인센티브가 일반 가구에 비해 4배나 높아 연 최대 40만원까지 지급 가능해사다.

진선희기자 sunny@ihalla.com

최신 국내육성 감귤 묘목 생산 전문업체

전망 좋은 신품종 감귤 만감류등 각종묘목을 선별하여 최상의 상품을 공급해 드립니다.



윈터프린스



탐나는봉

대한민국 국가대표 감귤나무

품질이 우수한 품종 1~4년생(포토묘, 일반묘)
윈터프린스 / 탐나는봉 / 사라향 / 하례조생 / 미래향 / 제라온
미니향 / 탐빛1호 / 무봉

농가보조지원 우량품종 1~3년생(포토묘, 일반묘)

레드향 / 한라봉 / 천혜향 / 황금향 / 우리향
궁전조생 / 유라조생 / 카라향 / 레몬

가정원에 조경수 2~7년생(포토묘, 화분묘, 일반묘)

하귤 / 팔삭 / 세미늘 / 금귤 / 당유자 / 머틀립오렌지

감귤묘목 수출전문업체 (중동, 아프리카, 동남아 등 5개국 수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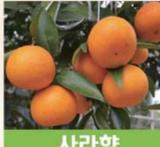
감귤 무병묘생산 정부지정업체 (무병묘생산, 모수포 보유)

보조사업 묘목공급 지정업체 (원지정비의 지원사업 서류가능)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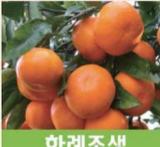
제주한라농원 감귤류묘목 나무시정!!!

◆ 1년생 규격묘, 2~5년생 일반묘, 포토묘, 화분묘 분양 ◆
◆ 정식/보식용 묘목 소량도 화시판매 가능 ◆

제주한라농원은 (사)한국과수종묘협회 우수업체이며, 우수신품종을 농촌진흥청 국유품종보호(통상실시권)계약자로 생산, 증식하여 판매하는 중요전문업체입니다.



사라향



하례조생



포트묘



화분묘

010-4736-2479 / 010-6500-2329

제주한라농원 | 제주특별자치도 서귀포시 성산읍 서성일로 991번길1(수산리735)

국립종자원 인증 '무병묘' 생산업체

< 무병묘 >

바이러스에 감염되지 않은 묘목
2025년 무병묘 예약 받습니다.
정부지원금 최대 3,000원 지원
인증서가 있는 것만 무병묘입니다.

< 도내 / 국내육성품종 >

도내육성: 우리향 / 달코미 / 레드스타 / 맛나봉
국내육성: 미래향 / 사라향 / 윈터프린스 / 등등
**도내 육성 품종은 제주도에서만 재배 가능합니다.
위 품종들은 통상실시 완료된 업체에서만 판매 가능합니다.**

< 포토묘 >

도내 최대 <포토묘> 생산
천혜향 / 레드향 / 한라봉 / 카라향 / 황금향 /
하귤 / 팔삭 / 자몽 / 레몬 / 외 다수 품종



**2025년 예약 중
무병묘 / 포토묘
보조사업 가능**



종자입등록번호 제18-제주-2022-20-02
010-4450-4316
제주시 조천읍 북선로100-29 / 조천읍 선흘리 3083, 2995-3
(사)한국과수종묘협회 우수업체, 무병묘 인증업체, 통상실시 완료업체